



강석희 후보가 한 중국계 가정에 들러 자신의 선거공약을 설명하며 한표를 부탁하고 있다.

강석희 어바인 시의원

지난 2년의 시정활동을 평가받는 입장인 강석희 어바인 시의원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.

2년전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시의회에 진입한 뒤 그동안 부시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지역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강 후보는 이번 선거에 승리해

새로운 4년을 알차게 꾸며 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.

특히 주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, 서비스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던 강 후보는 이번 선거전에서도 직접 걸어서 가가호호 방문하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며 친근감을 과시하고 있다. 강 후보는 "앞으로도 어바인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"며 지지를 당부했다. 〈황성락 기자〉